

<2022년 5월 11일 수요말씀>

나 여호와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시대 성경]

내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돕는 자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행하리라.

지난날 네가 물을 건널 때도, 환난의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살리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함께 행하면 형통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1장 10~14절] 개역한글

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허무한 것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3장 1~2절] 개역개정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금주 말씀은

〈야곱같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이 시대도 누구든지

〈절대적인 조건을 세우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 〈야곱〉은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받고 자라서

〈여리고 약한 성품〉이었습니다.

온순하고 착하기는 한데, 담대하고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지렁이같이 아주 약하다.” 하고

비유하실 정도였습니다.

- 그러다가, <야곱>이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홀로 ‘자기 인생길’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의지할 자>라고는 ‘하나님’ 밖에 없으니,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홀로 생활하며 사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 이런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은 더욱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고,

<두려움과 위축감과 걱정하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 과일이 <껍질>은 강하고 <속>은 약하듯이,

<에서>는 ‘과일의 껍질’ 같이 ‘강하고 외향적인 자’ 였고,
<야곱>은 ‘과일의 속’ 같이 ‘약하고 내향적인 자’ 였습니다.

- 신앙적으로 보면,

<구 역사>는 ‘과일의 껍질’ 과 같아서 강하고 억세고,
<새 역사>는 ‘과일의 속’ 과 같아서 여리고 착합니다.

고로 <새 역사의 사람들>은

<야곱>같이 더욱 ‘하나님’ 만 의지하고 ‘신앙’ 에 집중하게 됩니다.

-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야곱 같은 자들>이라고 보시고,
“야곱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 <야곱>이 ‘하나님의 뜻’ 을 따라 외갓집으로 가고 있을 때
날이 저물어 한 곳에서 ‘돌’ 을 베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 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베개로 삼았던 돌’ 로 <기도 단>을 쌓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 를 했습니다. (창 28:10-22)

- <야곱>이 홀로 별판에 있으면서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갖은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더 ‘하나님’ 만 찾고 의지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 <산기도>를 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산기도>를 다니면서
짐승이나 마귀나 귀신이 올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큰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홀로 산기도를 다녀본 자>만 ‘그 무섭고 두려운 심정’을 압니다.

대신, <홀로 기도>하면 ‘기도 집중’이 잘됩니다.

-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야,
다른 때보다 집중하고 몸부림쳐 행합니다.

<홀로 있는 자들>은 ‘쉴쉴하다. 적적하다. 외롭다.’ 하지 말고,
<홀로 있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을 때>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만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그 기회’도 지나갑니다.

- 모두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편안한 때>에는 ‘아쉬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간절히 기도할 내용’도 없습니다.

-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적의 기도’, ‘표적을 낳는 기도’를 했습니다.

- <다니엘>, <엘리야>, <에스더>, <다윗>, <솔로몬>, <예수님>
모두 ‘죽음’ 을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고로 <전능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 여호와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마.” 하시며,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니 직접 도우셨습니다.

- 이같이 하나님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기도의 표상자>를 통해 ‘참으로 도와준다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기도의 조건을 세운 자>를 통해 전해 주고 계십니다.

- 우리도 <이 시대 섭리역사>를 펴 가면서
<기도 표적의 역사>를 후대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하게 해야 됩니다.

- <섭리사>는 끊임없이 ‘기도 생활’ 을 해 왔습니다.

“왜 이같이 매일 기도만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조건>을 세우며 ‘기도’ 를 해 왔습니다.

<70일 기도>가 끝나면 또 120일 기도,
<120일 기도>가 끝나면 또 210일 기도,

그러다가 <1년>을 ‘기도하는 시간’ 으로 보내고,
<3년>, <7년>, <10년> 동안 ‘기도 생활’ 을 해 왔습니다.

- <시대 사명자>는 ‘머리’ 가 되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 전해 주고,

<따르는 자들>은 ‘그 지체’ 가 되어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성령님’ 을 부르고 찾으며
‘자기 사연’ 과 ‘어려움’ 을 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행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신앙>도 살았고,
<각종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 <기도함>으로

<월명동>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전’ 으로 만들게 되고,
<교회 성전>을 구하게 되고, <가정의 집들>도 사게 되고,
<기업들>도 잘 운영하게 되고, <취업>도 잘하게 되고,
<결혼>도 잘하게 되어 모두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캠퍼스>,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 모두 잘되고 있습니다. 아멘.

- <기도의 표상자>가 ‘모든 생명들’ 을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이고,
<섭리사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며 ‘신앙’ 을 지켰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 <기도한 삶>과 <기도하지 않은 삶>은 ‘삶의 운명’ 이 다릅니다.
모두 <기도함>으로 ‘축복’ 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아멘.

-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야곱>은 ‘집’에서는 기도를 잘 안 하다가,
‘급절한 환경’ 에 처하니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기도하니, 그제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알게 되고,
‘마음’ 이 놓이고, ‘두려움과 위축감’ 도 없어졌습니다.

-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잘되고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 중에 ‘천사들’ 도 보고
기뻐서 찬양하며 용기를 내어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야곱>은 외갓집에 가서도 ‘자기 생각’ 대로 안 되니,
양을 치면서 시간을 최대한 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야곱의 것이 되는 ‘얼룩진 양을 낳는 비법’ 을 보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행하여 ‘얼룩진 양’이 자기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21년간 <경제 축복>을 받고,
<결혼 축복>도 받았습니다. (창 30-31장)

- 마지막으로

<야곱>은 기도하여 <에서 문제>도 화평으로 해결했습니다.

결국 고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생을 마쳤습니다.

-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시대 야곱>같이 축복해 주고 계시니,

이를 알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여건>이라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축복받는 삶’을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니, 어련히 알고 해 주시겠습니까.

- <200일 기도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무릎 꿇고 기도한 지 ‘약 1260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동안

<수백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 주시고,

〈각종 만물 계시〉를 보여 주시고,
〈각종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 〈200일 기도〉가 끝나고,
〈월명동 상공〉에 야심작과 휴거관에 걸쳐서
〈황적 일자 무지개〉가 특이하게 떴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조건을 세우며 기도한 자〉와
〈섭리인들 모두〉를 상징으로 보인 것이다.

〈특별한 무지개〉는
〈특별히 돕겠다는 자연계시〉다.” 하셨습니다. 아멘.

-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특별히’ 도우셨습니다.

〈아픈 자〉가 낫게 해 주시고,
〈사고 당하여 죽을 자〉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마나 도우셨는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한,
자기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씻고, 잠을 자듯이 해야 됩니다.
- 〈기도〉가 ‘생활’ 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려면, ‘기도 체질’ 이 되어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200일 기도〉를 ‘초’ 를 지키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21일 기도〉를 하면서 ‘초’ 를 어기지 않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는 〈천지 창조〉를 해 놓고,
지금까지 ‘1초’ 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 이번에는 〈200일〉 동안 ‘약속한 시간’ 을 지켜
‘1260 시간’ 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나 여호와가 너와 섭리사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얼마나 중한지 더욱 알고,
기도가 없다면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홀로 자기 위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 〈머리가 되는 시대 사명자〉와 〈지체가 되는 따르는 자들〉은

하나 되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 모든 것을 <기도>로 고하여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만나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 기도해야,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 합니다.

기도해야,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하여 ‘영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 금주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뛰고 달려서

<참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을 괜히 했네.” 하지 않으시고,

“역시 그 말을 하길 잘했다. 내 말을 듣고 더 잘하는구나.

내가 참으로 돕겠다.” 하시게 해야 됩니다.

- 삼위의 평강과 기도의 능력이 모두에게 충만하여
기도의 사명자와 같이 행하기를 축원합니다.